



46만 구로구민의 대변자 구로오늘신문 창간 제26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6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4층 꿈나무극장에서 각계 인사와 수상자 및 가족, 동료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맞춰 발열검사, 거리두기 좌석 배치 등을 준수하며 조촐하게 열렸다.

本紙 창간 제26주년 기념식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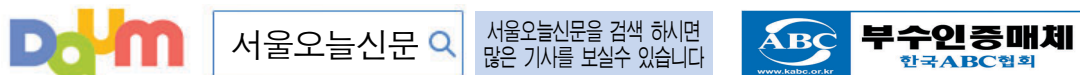
22일 '의정스타상·자랑스러운 공무원상' 등 12명 시상

수상자에 축하 시낭송-가곡도 선사

46만 구로구민의 대변자 구로오늘신문 창간 제26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6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4층 꿈나무극장에서 이성 구청장, 박동웅 구로구의회의장, 장인홍 서울시의회의 의원, 구의원들과 등 각계 인사와 수상자 및 가족, 동료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맞춰 발열검사, 거리두기 좌석 배치 등을 준수하며 조촐하게 열렸다. <관련 기사·화보, 수상자

공적 2·3·4면>
제1부 기념식은 본지 한만수 주간의 사회로 김유권 대표 겸 발행인의 내빈 소개, 유희상 회장 기념사와, 내빈 축하, 시낭송과 가곡, 2부로 본사 제정 '자랑스러운 얼굴'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희상 본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먼저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임직원들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우리 구로오늘신문은 창간 26년이 되어 지금까지 850호를 발행하면서 단 한 번의 결호(缺號)도 없이 초지일관 정론직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구로구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강조하고 "이제 구로오늘신문은 구로구민과 더불어 구로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여러분께 앞으로 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인사했다. <2면으로 계속> <채홍길 기자>



항동 생활체육관 개관

112억 들어 연면적 2,884㎡ 지상2층·지하2층
볼링장과 배드민턴, 농구장 등 다목적 경기장

구로구가 항동 생활체육관(항동로 24)을 개관했다.

구는 지난 27일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동 생활체육관을 조성해 이달 21일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항동 생활체육관은 연면적 2,884㎡ 규모에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지어졌다. 1층에는 12레인 을 갖춘 볼링장이, 2층에는 배드민턴과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실이 자리를 잡았다. 지하 주차장과 샤워실, 개인물품 보관함 등의 시설도 마련됐다.

구로구는 항동과 인근 천왕동의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에 맞춰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체육관 건립을 추진했다. 체육관은 5,2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항동 공공주택지구 내에 들어섰다.

2018년 12월 착공한 항동 생활체육관 신축 공사에는 총 112억여 원(국·시·구비)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사는 올해 6월 마무리했으나, 코로나19로 문을 열지 못하다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운영을 개시하게 됐다.

이용 가능 종목은 볼링과 배드민턴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며, 방역소독



구로구가 지난 27일 항동 생활체육관을 개관해 운영을 시작했다. 연면적 2,884㎡ 규모에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1층에는 12레인을 갖춘 볼링장이, 2층에는 배드민턴과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실이 마련되어 있다.

을 위해 2시간 마다 30분씩 시설 이용이 중단된다. 일요일은 휴관.

이용요금은 볼링은 1게임당 3,500원, 배드민턴은 2시간당 2,000원이다. 구로스포츠클럽 블로그(https://blog.naver.com/guro_7330)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이용시간 확대, 월 정기권 발행 등 운영방식을 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스포츠클럽 블로그를 참조하면 된다.

윤재우 체육진흥과장은 "항동 생활체육관이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체육관 이용 시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추천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시민의 일상이 회복되고, 서울의 내일이 희망차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합니다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 합니다

본지 창간 26주년 화보

〈1면에서 계속〉

이성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선 구로오늘신문의 스물여섯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인사하고 “구로오늘신문은 지난 1994년 창간이후 우리 구로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 정의를 위한 신문,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신문,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 신문”이라고 말하고 “김유권 대표님을 비롯 임직원들께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도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우리 구로구의회 16명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말하고 “지난 26년간 어려운 언론 환경속에서도 곳곳에 한길을 걸어오신 김유권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축하했다.

이어 본지 임원과 참석 내빈, 수상자가 함께 창간 26주년 기념 떡 절단으로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했다.

곧 바로 한국시낭송선교회장인 이강철 시인 겸 시낭송가가 무대 위로 올라 김소엽 시인의 ‘꽃이 피기 위해서는’을 멋지게 낭송, 관객들에 큰 박수를 받았고, 이어 성악계의 혜성과 같이 떠오르는 소프라노 박현애 교수의 가곡 나운영 작곡 ‘아! 가을인가’를 열창, 역시 관객들로부터 환희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 본지가 제정한 의정스타상,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모범구민상 등 12명에 대

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본지 유회상이 시상한 △의정스타상에는 장인홍 서울시의회 의원과 박종여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조미향 운영위원장, 그리고 유회상 회장과 이성 구청장이 함께 시상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에는 이동섭 구로구청 복지정책과장과 장, 정지원 구로구의회 사무국 홍보팀장 △모범구민상에는 최기현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유재순 구로2동 새마을부녀회장 △우수기업인상에는 공태균 효도로 노인전문요양병원 대표 △대민봉사상에는 조예나 공동종합사회복지관 상담사 △사회복지대상에는 서복례 구로4동 장학회 총무 △다문화봉사상엔 권기대 한·중다문화 자율방범대장과 장춘길 한국범죄피해예방위원회 팀장이 수상했다. 수상자 12명에게는 기념상패와 함께 꽃다발과 부상으로 푸짐한 상품이 수여됐다.

한편 이날 참석 내빈으로는 수상자 이외 이성 구청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을 비롯, 구로구의회 서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철성 의원(전반기 의장) 정형주 의원, 이명숙 의원과 유영환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재화 맥가이버봉사단장 겸 구로4동 장학회장, 오근영 효도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원장, 김옥자 문학광장 발행인, 표천길 문학광장 문화원장과 구로구청-구의회 과장, 팀장 등 공무원들도 참석해 본지 창간 제26주년을 축하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오늘신문 창간 제26주년 기념식에서 본지 유회상 회장, 김유권 대표와 수상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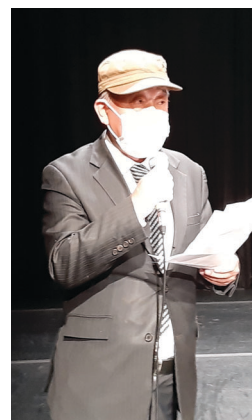
유회상 회장 인사말



이성 구청장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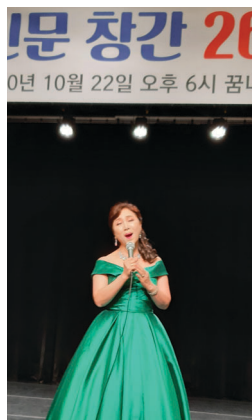
박동웅 의장 축사



김유권 대표 내빈 소개



이강철 시낭송가 시낭송



박현애 성악가 열창



이성 구청장과 유회상 본지 회장이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상한 구로구의회 사무국 정지원 홍보팀장과 기념촬영.

구로오늘신문 구독 및 광고 문의 010-9096-1144



코로나19도 경제위기도 소상공인 여러분이 있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 새희망자금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기간 · 접수처

온라인 신청 10. 16.(금) ~ 11. 6.(금) / 새희망자금.kr 참조

방문 신청 10. 26.(월) ~ 11. 6.(금) / 사업장 관할 지자체

신청문의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1082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 합니다

본지 창간 26주년 화보



구로오늘신문 창간 제26주년 기념식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가 가곡 나운영 작곡의 가곡 '아! 가을인가'를 열창하고 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4층 꿈나무극장에서 열린 구로오늘신문 창간 제26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시낭송과 가곡 열창을 감상하고 있다.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 기념식

2020년 10월 22일 오후 6시 꿈나무극장(4층)



구로오늘신문 창간 제26주년 기념식에서 '의정스타상'을 수상한 구로구의회 박종여 의원과 조미향 의원을 축하하기 위해 박동웅 의장과 동료의원들이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 기념식

2020년 10월 22일 오후 6시 꿈나무극장(4층)



구로오늘신문 창간 제26주년 기념식에서 '우수기업인상'을 수상한 공태균 효도로 노인전문 요양병원 대표를 축하하기 위해 본지 김유권 대표와 오근영 원장 등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입구에 설치된 본지 창간 제26주년 기념식 안내판.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 기념식

2020년 10월 22일 오후 6시 꿈나무극장(4층)



구로오늘신문 창간 제26주년 기념식에서 '사회복지대상, 다문화봉사상'을 수상한 서복례, 권기대, 장춘길씨를 축하하기 위해 이성 구청장과 박철성 구의원(전반기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로오늘신문 창간 제26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상한 이동섭 복지정책과장을 동료 직원들이 축하하고 있다.

축 창간 제26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구로구 상공회가 성공비즈니스와 함께 합니다

구로구상공회는 회원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영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비롯해 회원의 권익대변,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한 상담 및 교육, 전문적인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원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업정보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호성 회장

- 회 장: 이호성
- 명예회장: 차광선
- 수석부회장: 윤재현, 이재철, 김대욱, 한병성, 임명빈, 이정희, 송홍수, 권광로, 원택용, 박나영
- 부회장: 강성철, 김관택, 김도영(남), 김도영(여), 김명섭, 김성철, 김성희, 김준호, 문정숙, 박성용, 박양수, 박영재, 변완석, 변정열, 서용준, 서의석, 서정식, 성성모, 신재곤, 심은택, 유춘근, 이년준, 이동춘, 이봉영, 이재호, 정일진, 정재득, 조동수, 조일형, 조정하, 지영배, 하영재 (가나다 順)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 임원진 일동

구로오늘신문 선정 '자랑스러운 얼굴'

의정스타

◎장인홍 (서울시의회 의원)



장인홍 서울시의원(구로1,더불어민주당)은 재선의원으로 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장은 역임하고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경력도 다채롭다. 2016년 4월 서울사회복지대상(서울복지신문사)과 2016년 5월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에코데일리 신문사)에 선정됐고, 2017년 7월 제4회 우수의정 대상(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을, 그리고 2018년 2월 2017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시사뉴스)과 2018년 12월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서울기자연합회)을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종여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박종여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제7대·제8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제8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뿐 아니라, 열린 리더십으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서울시 구로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다수의 조례 제정을 통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침으로써 정책적 대안 제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최근,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의정&인물 대상, 2020 글로벌크라운 대상을 수상했다

◎조미향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조미향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구로구 해외교류 홍보대사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외 다수 주민생활밀착형 조례를 제정, 왕성한 입법 활동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제8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항상 소통하며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최근, 2020 지방의정 봉사상, 2020 매니페

스토 365캠페인 소통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이동섭 (구로구청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복지정책과장은 지난 1991년 5월서울시 9급으로 구로1동에 임용 이후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장, 보육지원과 여성정책팀장,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청소행정과 청소운영팀장, 지역경제과장을 거쳐 현재는 복지정책과장으로 30여년을 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통'이다. 이 과장은 특히 올해 코로나19관련 업무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011년과 2017년 서울시장 표창, 2015년 모범공무원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모범공무원이다.

◎정지원 (구로구의회 사무국 홍보팀장)



정지원 의회사무국 홍보팀장은 2019년 7월부터 구로구 의회사무국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로 맡은 일에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해왔으며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하여 구의회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기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의회 소식지와 의정백서를 발간하고 구의회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활동으로 구의회 기능과 역할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모범국민상

◎유재순 (구로2동 새마을부녀회장)



유재순 구로2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전형적인 봉사활동가이다. "건강 할 때 까지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 하겠다"며 새마을에서 봉사정신이 몸에 배어 있다. 지난 2000년도부터 새마을회원으로 들어와 2014년부터 부녀회장, 적십자회원, 한·중다문화봉사회, 시민경찰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어르신 목욕봉사, 저소득층에 김장김치 전달, 장학금으로 중·고교 3학년학생 5명에게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해 오고 있다. 특히 요즈음 한·중 다문화 봉사회를 통하여 한·중 가

교 역할로 분주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최기현(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최기현 위원장은 구로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구로구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등 구로구의 참여예산을 135명이 다루고 있다. 또한 구로4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구로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 깔꿈이봉사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헌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내 북한 이탈주민을 비롯한 소외계층 등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수기업인상

◎공태균 (효도로 노인전문요양병원 대표)



공태균 효도로 노인전문요양병원 대표는 지난 2009년 5월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개원 이래 ▲서울시 'TOP 10' 요양원 선정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1위 ▲ISO 9001 국 제인증 획득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최우수 ▲4년 연속 맑은 공기 우수 시설 선정 등을 통해 최상의 요양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구로점프 행사 ▲사랑의 쌀 나누기 ▲노인의 날 행사 후원 ▲서울 한영대학교 및 요양병원,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MOU 체결 ▲2019년도 구로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인공경과 효행을 실천하는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대민봉사상

◎조예나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담사)



조예나씨는 궁동사회복지관에 상담사로 지난 2016년부터 근무하면서 소외계층·차상의 어르신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안식처 역할이 되도록 복지사업 기관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찾고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을 돕고 있다. 그러기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지역 욕구조사, 지역 활동 참여조사, 저소득층 가정 밀반찬 돕기, 집수리봉사 등 활동가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대상

◎서복례 (구로4동 장학회 총무)



서복례 총무는 만능 맥가이버봉사단과 구로4동 작학회의 영원한 총무로 통한다. 구로4동 장학회는 2013년도부터 구로4동 관내 거주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근면 성실한 학생에 졸업시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을 수여 해오고 있다. 또한 맥가이버봉사단(단장 조재화·총무 서복례)을 통해 집수리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맥가이버봉사단 집수리봉사는 한 달에 3~4회 집수리 봉사를 하는 맥가이버봉사단이 447회를 맞았다. 맥가이버봉사단은 집수리봉사 외에 한 달에 3회 반찬봉사와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간식봉사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봉사상

◎권기대 (한중다문화 자율방범대장)



권기대 대장은 구로2,4동,가리봉동은 다문화가족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특화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한·중다문화회가 앞장서 나가자는 취지로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한·중다문화봉사회 자율방범대가 탄생했다. 한·중다문화 자율방범대는 지난 2017년 11월1일 창설됐다. 대원들은 한·중다문화회원 48명이 4개조로 나누어 1개조 10여명으로 구성되어 매주 화·목·토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구로2,4동의 골목 골목 순찰활동과 함께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장춘길 (한국범죄퇴치예방위원회 팀장)



장춘길 팀장은 한·중다문화봉사단의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가리봉동·구로2,3,4동 한·중다문화 가정의 범죄 퇴치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장춘길 한국범죄퇴치예방위원회 팀장은 다문화가정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3대폭력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범죄예방교육을통해서 범죄 예방 위원교육 강화 및 미래의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꿈을 키워나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리= 김유권·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조례안 등 심의 의결

폐회 직후 ‘청렴한 구로구의회상’ 정립 교육 실시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28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21일부터 8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으며, 23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다.

의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날카로운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제29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폐회 직후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재일 강사를 초청 ‘반부패 실무사례 분석을 통한 청렴한 의정활동 확립’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여 의원) ▲서울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연 의원) ▲서울시 구로구 감정노동 중 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 의원) ▲서울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만 의원) ▲서울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정형주 의원) ▲서울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



구로구의회가 지난 28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재일 강사를 초청,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환(항동 산18-2↔개봉동298-7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KBS송신소복합문화타운 건립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건립 ▲2021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8건의 안건이 원안가결(원안채택)되었으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항동 산18-2↔개봉동 298-7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건립 2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의원 4명 조례 대표발의



사진 왼쪽부터 서호연 의원, 이재만 의원, 정형주 의원, 이명숙 의원.

서호연 의원,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 관한 조례안
이재만 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한 조례안
정형주 의원, 구민 건강증진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 2건
이명숙 의원, 구로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관한 조례안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 4명의 의원들이 구민생활과 밀접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서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과 관련하여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지역 치안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 사업과 신청방법, 정산보고에 관한 내용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이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대상사업,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정형주 의원은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주민 누구나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로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 구성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로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 육성지원, 구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명숙 의원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악취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최숙자의원,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구로구의회 최숙자 의원이 최근 (주)글로벌뉴스통신이 주최한 2020년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주)글로벌뉴스통신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한민국 혁신성장브랜드 성장동력 가치를 인정 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을 엄격 선정, 시상식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 시상식 대신 지난 20일 (주)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발행인이 구로구의회 의장실을 직접 방문해 개별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제8대 전반기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하반기 복지건설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직접 현장을 누비며 주민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는 등 소통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



구로구의회 최숙자 의원이 (주)글로벌뉴스통신이 주최한 2020년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 분야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최숙자 의원은 “지방의원 본연의 활동에 충실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오늘의 수상은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 유희상

주관 : 한만수

등록번호 : 서울 다-510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발행인 : 김유권

편집국장 : 채홍길

기사제보 : 02)830-0905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 02)830-0905

메일 : news121@empas.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구로구,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 됐다

서울시 자치구 첫 인증 ... 전 세계 140여개 회원도시와 교류 펼쳐

구청사에 인증 현판 부착

구로구가 국제적인 ‘상호문화도시’로 발돋움했다.

구는 “내·외국인 주민이 다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펼쳐온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주민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초점을 둔 다문화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활발한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한 ‘상생’의 도시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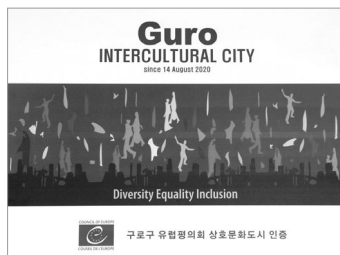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이 2008년 시작한 도시설계·운영 프로그램으로 상호문화전략, 갈등해소방안, 이주민 사회참여, 차별방지책 등 90개의 항목을 평가해 인증이 이뤄진다. 현재 전 세계 140여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구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상호문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구로구는 그동안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2018년 관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원스톱 공공



구로구는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기념해 지난 14일 구청사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사진 오른쪽부터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남영미 다문화서포터즈단장, 이성 구청장, 이상부 한중사랑 이사장, 프레마탈 다문화서포터즈 부단장, 김현숙 구로구청 생활복지국장)



구청사 현관에 부착된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 현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통합지원센터도 개소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다문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민·관·학 정책네트워크인 ‘다가치 多누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인의 날’ 축제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희

망의 메시지 전달을 주제로 지난 5월 ‘온라인 세계인의 날’ 축제를 진행했다.

상호문화리더, 글로벌 생활문화 예술리더 양성 과정 등 주민들의 상호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또한 구로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개발에도 앞장 서 왔다. 이성 구청장은 3대에 이어 4대(임기 2018.11.7~2020.11.6) 회장을 연임하고 있다.

구로구는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기념해 지난 14일 구청사 현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호주·아시아 권역 상호문화도시 온라인 포럼에 참여해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다문화한부모가정에 여성케어박스 50개 전달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월 20일, 여성 사회적 약자에게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여성케어박스 50개를 CK여성위원회에 전달했다.



유영환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20일 여성케어박스 50개를 CK여성위원회 이미화 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공단이 준비한 여성케어박스는 생리대, 여성 청결제, 일회용 찜질팩, 파우치 등 여성에게 필요한 패키지 물품으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공단은 지난 9월 21일 유프라시아의 집에 처음 50개를 전달한데 이어 금번 CK여성위원회에 50개를 추가 전달함에 따라 총 100개의 여성케어박스 나눔을 실천했다.

한편 CK여성위원회는 다문화 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협

약을 맺은 단체로 우리 공단과 함께 여성, 어린이, 다문화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을 진행해왔다.

유영환 이사장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여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 여성케어박스를 추가로 전달했다”며 “따뜻한 치유를 상징화한 박스로 지역 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금년에는 금연한번 도전!’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전개

나는 왜 금연이 힘들까? △흡연은 개인의 기호나 습관이 아닌 니코틴 중독 질환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끊기 어렵다.

그렇다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의지(4%) △의사의 권고(8~12%) △금연보조제(17%) △금연치료 의약품(26%)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있다.

금연치료의 자세한 내용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in을 통해 금연치료 기관을 찾으면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와 진료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 의약품과 니코틴보조제(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병·의원, 약국 3번째 방문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이수 시 1~2차에서 발생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해준다.

금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 변화는? △20분 후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며 △12시간 후 혈중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정상화되고 △2주~3개월이 지나면 폐기능 개선과 섬모가 정상기능으로 회복되고 △1년 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하며 △10년 후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금연의 수명연장효과? △25세~34세는 10년 △35세~44세는 9년 △45세~54세는 6년 △55세~64세는 4년으로 연장효과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페이지(www.nhis.or.kr)/고객센터(1577-1000)를 참조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사업체 근로자 대상

구로구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를 11월6일까지 받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다. 지원금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제한 적용을 받은 업종의

근로자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50만원씩이며,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구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로 이메일(gurojob@citizen.seoul.kr), 팩스(860-2650), 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지하1층 혁신사랑방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구청 일자리지원과 860-2045. 〈김유권 기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 운영

구청 강당서 11월 6일까지

구로구가 26일부터 오는 11월6일까지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에서 누락됐거나 매출 감소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를 구청 강당에 설치해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대상은 5월 31일 이전 창업하고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200만원씩 지원 된다.

현장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첫째주(10.26~10.30)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가 적용된다. 둘째주(11.2~11.6)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인터넷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해도 된다.

접수기한은 온·오프라인 11월 6일까지이며, 확인 및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채홍길 기자〉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록만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이사철 됐지만 집은 없고… 전세 수급 ‘불균형’

이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점검

본지에서는 10~11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 동향을 알아 보고, 이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점검해 본다.

서울 전역에서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가중되고, 이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10월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0~200 범위 내에서 100을 초과 할수록 공급부족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200에 근접했다는 것은 공급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 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 실거주 요건이 생긴 것도 전세 매물을 줄여줄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전세를 찼던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수도권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하는 8·4대책 발표 이후 청약에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다.



서울 전역에서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가중되고, 이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10월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사진은 신도림동 아파트단지)

부동산시장의 한 전문가는 “전세물건이 많이 부족한데 전세값도 많이 오른 상황이라 매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일부라도 움직이면 하락 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구로구,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매매상승률(0.56%) 높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비강남권의 상승이 높게 나왔다. 전세물량 부족으로 매매 전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와 함께 동반 상승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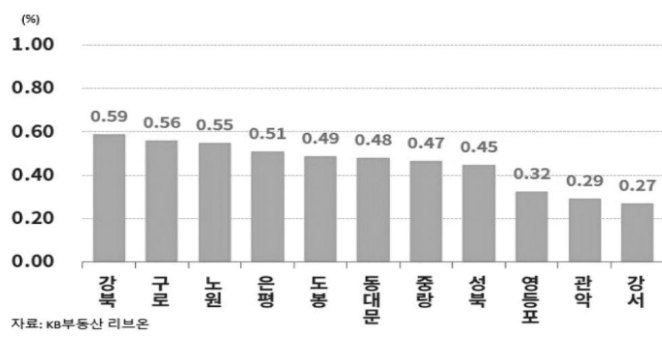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된 가을, 이사 준비 요령을 알아보자

◇이사는 이사종류 선택부터 결정

이사는 용달, 보관, 포장, 반포장 이사가 있다. 대부분의 가정집에서는 간편히 포장 이사를 많이 한다. 가장 편리한 이사 방법이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장 이사는 그만큼 비용이 가장 비싸기도 하다. 모든 짐 포장과 이사 갈 곳에 제대로 수납 및 정리를 원한다면 포장 이사, 큰 집은 업체에서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가 좋은 물건이라면 중고로 판매하거나 무료 나눔을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폐가전이나 가구 무료 수거 업

낮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 서비스 꼼꼼히 따져 봐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업체에 청소를 의뢰하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했다. 이용 전 상담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 장비를 이용하여 숙련된 작업자가 청소서비스 하는 것으로 확인받고 계약했다. 그러나 청소가 끝나고 집에 도착해보니 마루 구석에 먼지가 남아 있었고 창틀도 더러웠다. 청소 서비스 업체에 청소를 요구했지만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응대했다.

청소서비스는 대부분 고객이 현장에 없을 때 청소가 진행된다. 재청소나 사후서비스가 전혀 되지 않아 불만도가 높다. 청소 서비스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도 있고 마룻바닥이 들뜨거나 탈·변색 사고도 빈번하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부적절한 청소 방법이나 약품 사용 등에 기인한 것이다. 소비자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도 과도하게 발생한다. 계약금 환급을 해주지 않는 업체도 있다.

청소서비스를 주로 이사나 입주 전에 이용했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이사 화물운송업체의 소개를 받아 업체를 선정했으며 요금은 20만~6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이사 할 주택의 평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곳에 맞는 청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지혜이다. <한만수 기자>

전세 가격 급등, 매매상승으로 이어져 월세 전환 사례 늘면서 ‘전세 품귀’ 가속 ‘이사 요령 상식’ 제대로 알면 비용 절감

◇전세 물량 부족, 매매 전환 수요 늘어

신도림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전세 매물은 갈수록 씨가 마르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전세 물건이 나오는 즉시 바로바로 빠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뛰는데 전셋값만 가만히 있겠느냐”라면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5% 밖에 못올리게 되니까 집주인들이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조짐이다. 가을 이사철은 전세 수요가 다른 시기에 비해 30~40% 가량 많은 편이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재확산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거래 위축 현상까지 나타나며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이 지속 될 경우 매매 시장 불안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매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은 강북구(0.59%)이다. 두 번 째로 구로구 0.56%로 강북구보다 0.3% 낮다. 노원구0.55% 은평구 0.51%, 도봉구(0.49%)로 상승을 했다. 전체적으로 강남 보다는 강북구 쪽의 매매가격이 상승 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사비용 절감은 이사요령 상식을 아는 것 부터

전월세 거주자들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이사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이사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이사는 단순히 모든 짐을 옮겨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시 못할 수준인 데다가, 자잘하게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사 비용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즉 ‘알고 챙기는 만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옮기고 자잘한 짐은 내가 정리를 하고 싶다면 반포장 이사를 선택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포장 이사라도 가구나 가전은 업체에서 꼼꼼히 작업을 해주니 손이 가더라도 본인이 직접 정리하기를 원한다면 반포장 이사를 선택할 수 있다.

◇폐기물 수거

이사의 사전 준비 요령으로 가장 큰 정리는 일단 버릴 짐과 가져갈 짐을 구분하는 것이다. 짐의 평형을 달리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 보통 오래된 가구나 가전은 낡거나 파손되어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버릴 짐의 경우 이사 전에 미리 빼두면 이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가전이나 가구 등은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처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에는 중고 거래나 나눔을 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

체를 이용하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기부를 원한다면 적당한 기부처를 알아보고 사전에 수거를 요청하는 것도 좋다.

◇부동산 중개 비용 절감 요령

북비(중개수수료)는 최고 요율과 한도액만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에 따라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북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잘못된 계산법에 속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북비는 포털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 지역 및 금액, 협의 보수 등을 기입해 본인이 거래한 매물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면 된다. 부동산 북비 협의는 계약 전에 하는 것이 좋다. 계약이 끝난 후 협의하면 의뢰인도 계약을 무를 수 있기 때문에 북비를

디지털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완료

67개 건물 160개 점포 LED벽면간판으로
‘우리 동네 참 좋은 간판’ 30일까지 전시회

구로구가 디지털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개선사업은 남구로역 2번 출구부터 디지털로27길 33 삼화인쇄 입구까지 67개 건물 160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 2억 85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점포당 최대 150만원의 간판 제작·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새 간판은 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벽면간판으로 제작했다. 무주간판(주인 없는 간판), 돌출간판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은 철거했다.

구로구는 2008년 구로디지털단지 일대를 시작으로 주요 도로변 간판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간판의 가시성을 높였다. 영세사업자에게 교체비



구로구가 디지털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개선사업은 남구로역 2번 출구부터 디지털로27길 33 삼화인쇄 입구까지 67개 건물 160개 점포다. (사진은 간판개선사업 전과 후)

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도 줄여왔다.

한편 구로구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동네 참 좋은 간판!’을 주제로

전시회도 마련한다.

26일부터 30일까지 구청 신관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 전시작품은 간판과 건물이 조화로운 건물, 디자인과 예술성이 우수한 간판 등 8점이다. <김유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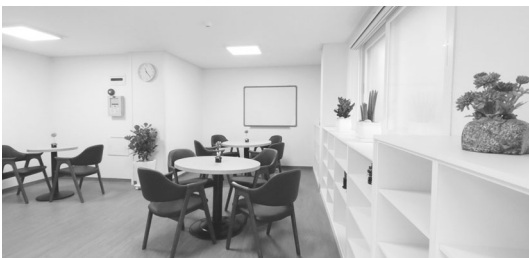
‘우리동네 독서동아리방’ 2개소 문 열어

오류1·2동에 회의용 탁자, 의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갖춰

구로구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우리동네 독서동아리방’ 2곳을 개관했다.

구는 “공간이 없어 활동하지 못하는 독서

동아리를 위해 기부채납 받은 오류동 소재 빌라 두 곳에 독서동아



구로구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우리동네 독서동아리방’ 2곳을 개관했다. (사진은 오류1동 텃밭 책수다방)

리방을 조성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우리동네 독서동아리방’은 오류1동 경인로15길 70-22에 ‘텃밭 책수다방’이 28㎡ 규모로, 오류2동 오리로11길 27에 ‘치척북북’ 독서동아리방이 31.68㎡ 크기로 마련됐다. 구는 각 동아리방에 교양서적 50여권과 회의용 탁자, 의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편의시설도 구비했다.

이용대상은 관내 독서동아리 회원 또는 주민이다. 전화(02-860-3021)로 사전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용료는 무료다.

3월 개교 향동중학교 20일 개교식 거행



20일 오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구로구 향동중학교 개교식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성구청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향동중학교(교장 이한구) 개교식이 지난 20일 오후 3시 구로구 연동로 239-2 학교 강당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성구청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구로구의회 박운희 부의장, 김희서 의원, 정형주 의원, 박래준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경과 보고, 내빈 소개, 교가 수여, 내빈 축사, 교가 발표회, 시설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

향동중학교는 지난 3월 개교했으나, 코로나19로 개교식을 하지 못하고 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축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성구청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박래준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나서 뜻깊은 개교를 축하했다.

지역구인 이인영 통일부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구로갑 국회의원도 “향동중학교의 역사적인 개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영상메시지를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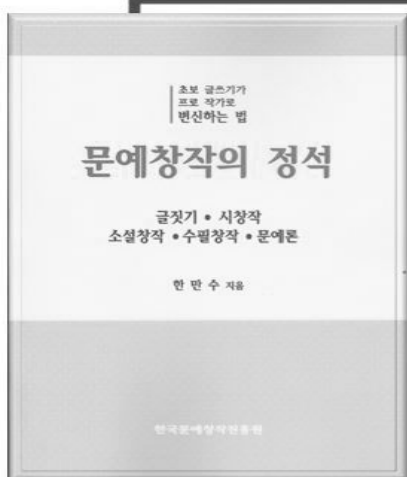
한편 이번에 개교식을 가진 향동중학교는 대지 10,552㎡, 교사 10,603㎡, 운동장 4,620㎡이다. 학생수는 1학년 일반 5학급·특수 1학급으로 학생수 105명이며, 2학년 일반 4학급, 특수 1학급 76명, 그리고 3학년은 2학급 34명 등 남학생 84명, 여학생 131명으로 총 215명이다. <채홍길 기자>

개관식은 22일 각 독서동아리방 앞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라운딩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광희 문화관광과장은 “독서동

아리방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활발한 독서 활동을 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용 시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문예창작실기 지도사 1.2급 자격증



교보문고
절찬
판매중

- 마법의 글짓기 작법
- 마법의 시창작법
- 소설창작의 정석
- 수필창작의 정석
- 예술과 문예창작

가격 43,000원

장편소설 6개월 완성
시창작 기초/완성반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 대하장편 소설 “금강” 15권
- 장편소설 “하루” 외 130여권
- 시집 “너” 외 7권
- “문예창작의 정석” 외 3권
- 이무영 문학상 외 다수
- 한국문예창작진흥원 원장
- 경희사이버대학교 소설창작 강의



한만수 원장 직접 강의

한국문예창작진흥원

구로역 근처 02-2636-3765

축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준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중식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축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코로나19에도 '안전한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집이 앞장 서겠습니다!!!

국공립	가온어린이집	개봉제2동	국공립	다솔어린이집	구로제3동	국공립	성은어린이집	구로제2동	국공립	자람터어린이집	구로제3동	국공립	해나래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	개봉제1동	국공립	다향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세화어린이집	구로제4동	국공립	자연숲어린이집	향동	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경남큰사랑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두산어린이집	구로제4동	국공립	신나라어린이집	개봉제1동	국공립	지암어린이집	개봉제3동	국공립	해담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경선어린이집	개봉제2동	국공립	만나어린이집	개봉제1동	국공립	아나올장애어린이집	구로제3동	국공립	참누리어린이집	개봉제1동	국공립	해돋이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고척어린이집	고척제1동	국공립	명화어린이집	개봉제2동	국공립	엔젤어린이집	구로제3동	국공립	초롱어린이집	개봉제2동	국공립	해뜨락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구로생명숲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개봉제2동	국공립	연꽃어린이집	구로제3동	국공립	키즈공동어린이집	구로제4동	국공립	해들어린이집	구로제2동
국공립	구림해사랑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미래어린이집	구로제4동	국공립	연우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파란나라어린이집	고척제1동	국공립	해랑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구민어린이집	구로제4동	국공립	반야어린이집	신도림동	국공립	연지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푸르미어린이집	개봉제1동	국공립	해바라기어린이집	향동
국공립	구일어린이집	구로제1동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가리봉동	국공립	연초롱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푸르지오아아어린이집	고척제2동	국공립	해봄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궁동어린이집	수궁동	국공립	블루밍서연어린이집	고척제2동	국공립	영서어린이집	구로제3동	국공립	푸른숲어린이집	구로제1동	국공립	해오름어린이집	구로제5동
국공립	꽃망울어린이집	향동	국공립	사과나무어린이집	개봉제2동	국공립	예다움보듬이나눔어린이집	개봉제3동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고척제2동	국공립	해피밸어린이집	신도림동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	구로제1동	국공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신도림동	국공립	예랑어린이집	오류제2동	국공립	하늘샘어린이집	개봉제2동	국공립	햇살어린이집	고척제1동
국공립	꿈사랑어린이집	개봉제1동	국공립	사랑별어린이집	구로제4동	국공립	예크어린이집	개봉제2동	국공립	하늘어린이집	개봉제2동	국공립	행복한아이어린이집	개봉제2동
국공립	꿈이있는어린이집	구로제2동	국공립	산들어린이집	개봉제1동	국공립	오류동행복주택어린이집	오류제1동	국공립	한사랑어린이집	개봉제3동	법인 단체 등	요셉어린이집	구로제3동
국공립	나래어린이집	오류제1동	국공립	새롬마을어린이집	오류제1동	국공립	온새미어린이집	구로제5동	국공립	한진예달어린이집	개봉제3동	법인 단체 등	햇님어린이집	구로제3동
국공립	날아라어린이집	향동	국공립	새빛어린이집	향동	국공립	온수어린이집	수궁동	국공립	향동라운어린이집	향동	법인 단체 등	희망어린이집	구로제5동
국공립	느티나무어린이집	향동	국공립	새움터어린이집	구로제3동	국공립	우방어린이집	구로제1동	국공립	향동어린이집	향동	사회복지법인	남산어린이집	고척제1동
국공립	늘사랑어린이집	신도림동	국공립	셋별어린이집	구로제5동	국공립	은가람어린이집	신도림동	국공립	향동하랑어린이집	향동	사회복지법인	덕성어린이집	고척제2동
국공립	능곡어린이집	고척제2동	국공립	섬기는어린이집	가리봉동	국공립	이화우성어린이집	구로제3동	국공립	해가람어린이집	신도림동	사회복지법인	한솔어린이집	개봉제1동

구로희망복지재단 Guro hope welfare foundation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축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거창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더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듯이,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제적 어려운 이웃을 지원합니다.

지원문의 : **구로희망복지재단 02)867-1695**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5774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손편지’ 공모 결과 발표

편지마다 고향 못가는 아쉬움, 부모님 그리움 ‘한가득’

112편 접수 우수작 16편 선정, 구 소식지·블로그 공개

구로구가 ‘사랑의 손편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구는 추석을 맞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주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향의 부모님께 사랑의 손편지 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모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특히 아이디어를 낸 이성 구청장이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직접 편지 쓰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구청장은 편지를 통해 20여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2편의 편지가 접수됐다. 주민과 관내 직장인들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부모님께 평소 하지 못했던 말, 부모님과 고향에 대한 추억, 그리움 등을 편지에 담아 사진, 스캔·전자파일 등의 방식으로 응모했다.



구로구는 추석을 맞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주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향의 부모님께 사랑의 손편지 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모도 실시했다.

구로구는 지난 16일 구청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 16편을 선정했다.

주민 A씨는 “부칠 주소가 없는 편지, 추석이면 더욱 그리워지는 나의 어머니께”라고 시작하며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했다.

주민 B씨는 “엄마, 지금도 여전히 자식들한테 튼튼하고 강한 원더우먼 엄마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며 앞으로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본인이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 C씨는 어머니께 투정부렸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지금껏 공부한답시고 취직한답시고 또 결혼하고는 애 키운다고 엄마께 효도다운 효도도

못하고 이제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주민 D씨는 병문안을 가지 않게 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실감났으며 “엄마와 같이 산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나눠줘 너무 고마워”라고 그리움을 표했다.

우수작 중 6편은 구 소식지 11월호, 10편은 구 블로그를 통해 전문(全文)이 공개된다.

〈채홍길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지금은 농촌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이웃집 문화’의 핵심도 품앗이라든지, 공동체 의식보다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점이다. 보릿고개 시절 소나무 껍질로 쏘 죽, 혹은 밀가루에 나물을 섞어 끓인 풀죽일망정,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들 보

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서적 교류가

있는 사회에서 나혼자만 살겠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는 자신이 조금 손해

한가위만 같아라 ㉠

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서적 교류를 중요하게 여긴다. 정서적 교류를 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세칭 ‘왕따’를 당하거나, 이상한 집 취급을 하며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과학은 정확성을 요구한다.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달되면서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정서적 교류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개인주의는 미국의 개인주의와 성향이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의 개인주의는 정서적 교류를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를 보더라도 남에게 배려를 해준다. 우리사회 개인주의는 배려를 해 주지 않고 나만 위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의 개인주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그건 개인주의가 아니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문화이다.

올해는 한가위가 빠르게 와서 아직 서리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많다. 예전과 다르게 한가위가 특별한 날로 기억되지 않는 문화지만, 한가위의 풍성한 인심이 자꾸 잊혀져 가고 있는 점은 몹시 아쉽기만 하다.

〈본지 회장〉

쓰레기 무단투기 구로4동 극동아파트 담장

구로글로벌위원회, 황금 측백나무 화단 조성

구로글로벌위원회(회장 김경진·본부 여성회장 김영희)는 지난 10월25일 오후 2시30분 구로4동 소재 극동아파트 담을 끼고 인근 주민들이 ‘무단투기의 장’이 되던 곳에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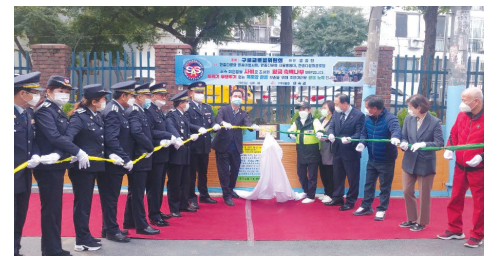
금 측백나무 화단을 조성하고 박철성 구의원, 정주원 다문화정책과장, 민숙경 구로4동장 등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식을 가졌다.

이곳은 주민들과 지나가는 행인

들이 몰래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던 곳이었다. 이에 김영희 회장이 조화꽃 단지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던 곳이다.

민숙경 구로4동장은 “쓰레기 무단투기없는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는 취지에서 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화단 조성은 구로글로벌위원회와 한·중다문화 깔꿈이 봉사회, 자율방범대(대장 권기대), 경로당(회장 현효석) 등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조성됐다. 〈김유권 기자〉



구로글로벌위원회는 지난 25일 구로4동 소재 극동아파트 담을 끼고 인근 주민들이 무단투기의 장이 되던 곳에 황금 측백나무 화단을 조성하고 조성식을 가졌다.



더 스마트하게, 더 편리하게

구로신협 온뱅크

평생어부바 따뜻한 금융 신협의 가치를 담은 신협 온(ON)뱅크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신협의 금융 서비스 이용 상호금융 최초 비대면 조합원 가입 가능제 도입

직관성과 편의성 증점 등 UI/UX 설계

*앱 메인화면, 이체, 조회 등 메뉴 전반의 구성 및 배치 등을 최적화 하여 기존 신협의 모바일뱅킹앱 대비 사용자 체감속도 30%이상 개선하여 모바일 접근성 강화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위한 편의 기능

*음성뱅킹으로 이체,조회 메뉴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및 고령자들도 편하게 모바일 뱅킹 이용 가능

· 유니온정기적금 · 유니온정기예탁금 · 유니온자유적립적금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넘었다

일가족 4명 확진 등... 189명 완치 퇴원-12명 치료중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현재 모두 201명으로 189명이 완치 후 퇴원하고 12명이 치료중이다. <사진은 구로구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28일 현재 201명으로 지난 1주일 사이 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189명이 완치 퇴원하고 12명이 치료중이다.

관내 201번 확진자는 항동 거주 40세 남성으로 200번 확진자 남편이다. 가족 확진에 따라 24일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명판명 되었으나 1차 검사후 증상이 나타나 25일 재검사 결과 당일 저녁 양성으로 확진 됐다.

200번 확진자는 관내 19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23일 검사 당일

양성 판명됐다.

195번, 197번, 198번, 199번 확진자(신도림동 거주 26세 여성)는 가족 확진에 따라 22일 검사, 2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97번 확진자는 타 구 소재 직장인으로 자택 외 구로구 동선은 없다.

28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201명으로 치료중 12명, 완치자 189명이며 자가격리자는 밀접접촉자 80명, 해외입국자 380명 등 모두 459명, 능동감시대상자는 없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

국동포심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부천시 쿠팡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운수 관련 4명, 타시군구 접촉 40명, 해외 입국 4명, 기타 7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확진자는 28일 현재 모두 5,876명으로 구청별로 보면 ▲관악구가 463명으로 4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송파구 377명 ▲사랑제일교회 소재 성북구가 347명 ▲노원구 327명 ▲강남구 312명으로 4개구가 300명을 넘어섰다. 또 ▲강서구 299명 ▲은평구 263명 ▲동작구 260명 ▲도봉구 224명 ▲서초구 221명 ▲영등포구 208명 ▲중랑구 208명 ▲구로구 201명 ▲강동구 202명 으로 9개구가 200명을 넘어섰고 이어 ▲양천구 188명 ▲마포구 183명 ▲동대문구 175명 ▲강북구 156명 ▲용산구 142명 ▲서대문구 137명 ▲광진구 137명 ▲성동구 134명으로 8개구가 100명선을 넘었다. 이어 ▲금천구 97명 ▲종로구 95명 ▲중구 6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채홍길 기자>

김남광 전 구의원, 징역 1년8개월... 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양도소득세 대납 명목 등 총 4억5천만원 편취"



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지분 소유자들과,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M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김남광(사진) 전 구로구의회의원이 건물 이전 등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남광씨는 피해자 A씨 소유인 오류1동 삼익쇼핑건물의 지분을 넘겨주면 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때 구의원으로 활동시 건설위원장으로 역임했던 점과, 건설사를 갖고 있다. 피해자 A씨 소유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재개발 추진하기가 쉽고, 재개발을 하기 이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재개발후 건물이 완공되면 음식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한다.

피해자 A씨는 김남광 씨의 말을 듣고 3억 5천만원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피해자 지분이 있던 건물은, G주식회

을 또 다른 사람이 직권을 설정해 놓는 등 이해관계가 어려워 재개발이 쉽지 않은 건물이었다.

검찰은 김남광씨 또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세무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양도소득세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며, 피해자 A씨에게 1억원을 받아서, 실제로는 249만원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금액은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 점 때문에 피해자 A씨가 김남광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 일가족 확진자 3차 전파... 부천 무용학원 원생 등 40명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일가족(구로 195·197·198·199번 확진자) 관련 부천 무용학원 원생과 그 가족까지 최소 3차 전파가 확인됐다. 무용학원 인근 학교나 유치원, 학원 등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26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주요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직장인 부천 무용학원에서 원생인 초등학생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로구 일가족 집단감염의 경우 구로구 주민 1명이 지난 22일 최초 확진된 이후 24일까지 12명,

25일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40명으로 이 중 26명이 부천 무용학원, 14명이 구로구 일가족 관련이다. 지표환자와 가족은 4명이었지만 지인 또는 지인 가족이 8명, 가족 구성원의 동료 2명까지 감염됐다. 부천 무용학원 이용 원생의 가족 등이 13명이다. <김유권 기자>

11월부터 어린이집 라돈 상시 모니터링

국·공립어린이집 98곳 감지기 설치

구로구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라돈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구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감지기를 설치, 라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구로구는 1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98곳을 대상으로 라돈 감지기를 설치한다.

라돈 감지기는 실내 공기 중의

라돈 농도를 10분 간격으로 24시간 관찰한다. 측정값이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인 148Bq(벵크렐)/m³을 초과하는 경우 패널에 경고 신호를 띄운다. 구로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주)라돈프로텍, (사)동행연우회와 협력한다.

지난달 23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어린이집 라돈 모니터링'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이성 구청장, (주)라돈프로텍 박정규 대표이사, (사)동행연우회 김영태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작성,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한만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단풍철 등산객은 산행 후! 농업인은 수확 작업 후!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 양돈농가 종사자는 경기·강원 접경지역 입산 금지(외국인 종사자도 준수 철저)



농장 내부 청소·소독 지속 실시

- 농장 출입구 및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두텁게 구축
- 트랙터 등 농장 장비는 반드시 세척·소독 후 사육시설과 분리

방역시설 점검

- 울타리, 차량·사람 소독설비, 퇴비장·방조망 등 점검·보완

양돈농가는 기본 방역시설을 갖추고
농장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시다

농장 출입통제

- 외부 차량·농기계·사람은 농장 내 진입 금지

농장 출입시 손 세척·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준수

- 사람과 접촉이 잦은 모돈(어미돼지)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모돈사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입시 위생장갑 및 전용장화 착용



양춘자 시인, 처녀시집 '엄마도 아팠단다' 출간

‘익어가는 삶’ 등 5부로 나눠 주옥같은 시 76편 실려

양춘자 시인의 처녀시집 ‘엄마도 아팠단다’가 출간했다.

‘엄마도 아팠단다’ 제1시집에는 1부 ‘익어가는 삶’에는 물고기들의 회의 등 15편, 제2부 ‘섬 하나’에는 서리꽃 외 16편, 제3부 ‘당신을 만나는 시간’에는 나는 나를 사랑하리라 외 18편, 제4부 ‘나팔꽃 사랑’에는 화장 외 15편, 제5부 ‘하얀 민들레’에는 텃밭의 오이 외 12편과 이영균 시인의 시 해설이 수록됐다.

양춘자 시인은 서두에서 “세월이 꿈만 같다.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세상, 온갖 세파에 휩쓸려 온 세월 아직도 길거리에서 서성이는 파랑새의 꿈을 꾸고 있다. 그 꿈은 자연과 삶속에서 시(詩)로 융해되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영균 시인은 해설에서 “생애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 오면서 늘 주변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맑고 순수한 여류시인이다. 그의 시집을 읽으면 온화한 연꽃과 같다”고 평했다.

‘도서출판 오늘’ 정가 12,000원이다. <김유권 기자>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구키프 어린이 기자단’ 모집

전국 초등학교 3~5학년생 50명 ... 11월 2일까지 영화제 홈페이지서 접수

(사)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제1기 ‘구키프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한다.

‘구키프 어린이 기자단’은 매월 영화평론, 사회이슈, 직업탐험 등 새로운 주제를 어린이의 시각에서

직접 취재해 관련 기사를 작성한다. 2021년에 열리는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에 참석해 영화제의 생생한 모습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작성한 기사는 정기소식지로 발행되며, 영화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도 소개된다.

모집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50여명이다. 신청을 원

하는 어린이는 내달 2일까지 영화제 홈페이지(movie-guro.or.kr)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어린이 기자단에는 모자, 배지, 기자증 등 기념품이 지급된다. 활동기간은 내년도 7월 30일까지며, 활동 종료 후에는 인증서가 발급된다. 우수기자에게는 표창과 소정의 상품도 수여된다.

<채홍길 기자>



초대시

인생의 광장에서

시인 조 윤 주



지하철역 바깥

나무계좌 하나가 전부인 그의 가게는
몇 십 개의 엽들이 보기 좋게 잘려 있었고
광대차림 그의 눈동자에 발길이 멈춰 섰다
영하 20도를 넘나는 냉동된 가난
하지만 햇살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옛장수의 몸놀림이 점점 뜨거워지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목청을 다해 노래로 답하는

가위의 곡조를 들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경쾌한 박자는

애써 슬픔을 감추려는

차이코프스키의 고뇌가 숨은 듯도 했다

가난한 숨소리가 절반을 차지한 인생의 광장

나는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렀다

주머니의 돈은 달랑거렸고

사랑은 적립된 이별로 뒹굴었다

그의 널빤지 위에 영혼이 묶인 저울

하늘과 땅은 입안에 짹짹 달라붙는

고통의 엽가락을

살아있는 자들의 목젖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불구멍을 든 신호등이

엄동설한(嚴冬雪寒)을 멈춰놓고

냉동된 터널을 지나야 봄이 온다고

키득거리는 계절이었다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
- 한국문협 회원, 예술시대작가회 회원, 현대시학 회원
- 개인시집 5권 [미완성의 노래가 그녀를 일으켜 세운다
새살 돋는 사랑의 성] [꽃뽕] 그 외 공저 수십 여 권
- 한강문학 이사, 서울오늘신문 객원기자
- 조윤주시인의 '꽃갤러리' 대표

구로문화원 문화예술강좌 재개강 안내

♣ 운영강좌 (18강좌 31개반)

강좌구분	운영 강좌명	정원(명)
어학강좌	영어 회화(기초, 초급, 중급)	105
	생활 영어회화	20
	여행영어	30
	일본어 회화(초급, 중급)	30
	생활 일본어회화	15
생활문화강좌	사진교실(기초, 포토샵)	20
	캘리그래피(붓글씨, 펜글씨)	30
	한자교실	15
	시창작반(손목자, 조규남)	30
전통문화강좌	서예교실(화요반, 목요반)	40
	사군자	20
	수묵화	20
	민화(월요반, 수요반)	30
공예미술강좌	미술(유화, 수채화)	15
	팝아트	15
음악강좌	가야금교실(주간반, 야간반)	20
	우쿨렐레교실	15
	기타교실(주간반, 야간반)	30
		총 인원 500명

♣ 미 운영강좌 (25개강좌 46개반)

중국어회화(초급반, 중급반), 생활중국어,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하모니카, 민요장구(화), 민요장구(목), 한국무용, 한국무용 타악반(진도북, 장구), 우리춤체조, 발리댄스, 줌바댄스,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웰빙댄스, 요가/필라테스, 사물놀이, 노래교실 (구민회관에서 운영), 어린이 창작미술

♣ 11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구로 문화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38, 오류문화센터 2층

☎ 02) 851-0837, 860-2629